

■ 괴운(槐雲) 칼럼



탄금대(彈琴臺)에 세워진 권태흥 시비(詩碑)

권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지난 4월 봄꽃이 만개한 어느 날 평소 꼭 가고 싶었던 충주 탄금대를 방문하였다.

탄금대(彈琴臺)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의 한 분인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하여 탄금대로 불렸다 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신립(申立:1546-1592) 장군이 고니시유키나와(小西行長)이 이끄는 왜군과 맞서 배수진을 치다 실패하자 남한강에 투신하여 장렬히 전사한 곳이다. 탄금대는 강원도 김동소에서 시작한 남한강 물이 충주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금대산을 휘돌아 달천물과 합쳐져 '합수머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한강이 절벽을 따라 휘감아 돌고,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경관이 아름다우며, 열두대에서 조망되는 남한강과 계명산 및 충주시가지와 넓은 평야가 절경인 곳으로 강줄기를 중심으로 자리한 중원 역사 문화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이곳은 1976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국가 명승 제42호로 승격되었다. 명승지 내에는 충훈탑, 충장공 신립장군과 팔천고훈위령탑, 탄금대 사연 노래비, 악성 우륵선생 추모비, 열두대, 신립장군 순절비와 대흥사 등이 있고, 특히 이 지역 충주 출신 권태응(權泰應) 시인의 동시(童詩)인 <감자꽃 노래비>가 있었다.

먼저 주차장 옆 탄금대 입구에는 이병환 작사 백봉 작곡, 주현미 노래인 <탄금대 사연 노래비>가 세워져 있었다. 다음으로 충훈탑과 충장공 신립장군과 팔천고훈위령탑을 탐방하였다. 충훈탑은 충주지역 국군장병, 경찰관, 군속, 군 노무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5년 상이군 경용사회 충주분회와 장병 보도분회에서 건립하였다. 그리고 충장공 신립장군과 팔천고훈위령탑은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그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동천(洞泉) 권태응(權泰應) 시인의 <감자꽃 노래> 시비이다.

권태응 선생은 1918년 4월 20일 충주시 철금동에서 출생하여, 1932년 충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 1937년 3월 서울 경성 제일고(현 경기고) 졸업, 37.4월 일본 와세다(早稻田) 대학 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재일 유학생 모임에 조직되어 1939년 5월 일본 스가모(巢鴨) 형무소에 투옥되었으며, 1940년 6월에 병세 악화로 풀려나 시를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1951년 3월 28일 작고하였다. 2005년 8

월 15일 독립운동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태응 시비는 윤석중 선생 등의 새싹회 후원으로 1968년 제 68회 어린이날에 세워졌으며, 1974년 5월에 다시 새로운 글씨로 교체하였다. 감자꽃 노래비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주 꽃 핀 건, 자주감자, 따 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따 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었다.

노래비를 보고 탄금대 북쪽 남한강변 절벽에 있는 열두대와 탄금정(彈琴亭)을 보았다. 열두대는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투 당시 뜨거운 화살을 식히기 위해 열 두 번이나 오르내렸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 하였다.

탄금대 탐방을 마치고 근처 중앙탑(中央塔)을 구경했다. 중앙탑은 남한강 옆 강가 언덕 위에 위치한 전체 높이 14.5m 화강암제 칠층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해설자에 의하면 신라 제 38대 원성왕 때 통일신라 전 국토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북쪽으로 걸어 만난 국토의 중앙지점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남한의 정중앙이 충청북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한 것 같다. 중앙탑은 신라 중원지방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1962년 국보 제6호로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근처 고구려비(高句麗碑)를 탐방하였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한강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유물이자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 의미가 크다. 비석은 2.03미터 높이에 전면폭이 55cm, 측면폭이 37cm로, 고구려 장수왕의 천하관과 당시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진출을 입증하는 결정적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비석은 1979년 2월 충주지역 문화재에 호단체에서 석비를 발견하고 1981년 3월 18일 국보로 지정되었다. 나는 충주의 고구려비석을 보면서, 수년 전 중국 지린성 지안시(集安市)에서 본 광개토태왕 비석이 생각났다. 지안시에 세워진 광개토태왕비는 414년 그의 아들 장수왕이 부친의 정복 활동을 높이 6.39미터의 비석에 1,775자의 글로 새겨져 있었다.

오랜만에 충주지역의 문화를 느끼며, 특히 동천 권태응 선대의 시비(詩碑)를 보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안동권씨대중회 제례위원들 간담회 가져

안동권씨대중회 제례위원회(위원장 권정창)는 4월 30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흥동 별장공파총회관 3층 사무실에서 제례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권정창 제례위원장을 비롯하여 권갑현 총보편집위원장,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 권경용 안동종친회 원로원 회원, 권혁창 북아공파 대구시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등 13명이 참석하였다.

권오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권기수 파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시조 및 아시조 춘, 추 향사 때 제례위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제례위원들의 발전을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정창 위원장은 "별장공파에서 제례위원들을 불러 주어서 매우 고마우며 지금까지 초청받은 적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곡회가 시조 묘소에만 제수를 봉송하고 있는데 앞으로 낭중공 단소의 제수도 능곡회원이 봉송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창 회장은 춘, 추 향사 때 집례자는 장홀(唱物)을 하기 전 반드시 연습을 한 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갑현 위원장은 "안동권씨 사성 1100년이 되는 오는 2029년 1100년사를 발간할 예정인데 1000년 역사의 자료는 풍부하나 근세 100년 역사의 기록은 다소 부족해서 안동 종친회 역사나 각 파별 및 문중 역사를 보내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묘소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낭중공 단소에 제수 봉송이 되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 나왔다.

주최 측은 간담회를 마치자 참석자들에게 1.5kg짜리 백진주 쌀 1부대, 관헌(觀軒) 권경용 회헌시집 1권, 양말 6켤레를 선물로 각각 나누어 주었다.

제례위원들은 시내 운동장길(정동하)에



위치하고 있는 '정목한정식'으로 이동, 점심을 먹었는데 권기수 별장공파 회장이 점심값을 부담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서울지역 종친회 경주운곡서원 참배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에서는 5월 12일 시조 테사공의 분향 경주에 위치한 운곡서원을 참배했다. 전날 하루종일 밤까지 비가 내려 은근히 걱정이 많았는데 아침이 되자 시조 할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다행히 하늘은 맑았다. 아침 7시 30분 사당역 6번 출구에서 회원 30여 명이 탑승한 버스는 운곡서원을 향해 출발했다. 12시경 경주 운곡서원에 도착하여 운곡서원 운영위원

장이자 좌운공파파총회장인 권오신 회장을 비롯하여 시조소 춘추 향사 시 집례와 축으로 명호가 높은 권용호 종친과 서원 관리를 맡고 있는 권진택 유사 세 분이 미중 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안내를 해주었다.

권영복 서울지역 종친회 회장은 예복으로 갈아입고 회원들은 시조 테사공을 주벽으로 모시고 단종사화 절신인 죽림공(竹林公 권

산해, 19세)과 단종사화 이후 100년 만에 소년 등과한 귀봉공(龜峯公, 권덕린, 23세)이 배향되어 있는 경덕사로 이동하여 권용호 종친의 흉기에 따라 향례를 봉행하였다. 일행은 향례를 마치자 운곡서원 정의당 마루에 앉아 권오신 운영위원으로부터 서원의 역사와 유래에 대하여 30여 분 동안 보화강 좌를 경청했다.

기념 촬영 후 유언정 앞 압각수(은쟁나무)와 유언정에 대한 유래를 감명 깊게 듣고 압각수의 주인공인 갈산공의 비각과 시조 테사공의 신도비각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정국장찌개와 버섯두부전골로 약주와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일행은 다음 행선지인 불국사로 이동하여 삼삼오오 두루두루 관람한 후 감포해변을 산책하며 기념 촬영 후 오후 4시경 서울로 출발 저녁 9시 30분경 사당역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다음주 있을 산행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서울지역종친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안동에서 주최한 제33회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에 참석한 후 능동재사로 이동하여 시조 묘소와 낭중공 단소에 참배한 바 있다.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삼밀3密 권영복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용 대중회부회장(좌운공파 38세)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2)따라서 역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인간 타락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본연의 인간은 사망하고(영적으로) 본연의 세계는 파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를 재창조해야 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러한 재창조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꾸며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 창조 때에 적용되었던 제법칙(창조법칙)을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

3) 복귀역사-1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본연의 세계(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본연의 인간상도 그 본연의 세계에 남겨 둔 채 미본연의 모습 또는 비원리적인 모습이 되어서 비원리적인 세계에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연의 인간상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상으로 남겨 되었다.

한편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의 창조가 실패된 것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비원리적인 세계와 인간을 본연의 상태로 회복, 즉 복귀하는 섭리를 계속해 오셨다. 따라서 인류역사는 복귀 섭리역사라는 또 하나의 측면을 갖게 된 것이다.

인간 타락은 일정한 법칙(하나님 계명)을 준수하지 않은데 있으므로 인간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이 요구된다. 이것이 복귀의 법칙이다.

<다음호에 계속>

서울산악회 제29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338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29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정기산행 후 아래와 같이 거행됩니다.

제338차 정기산행에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6월 16일 (시간엄수)
- ♣ 집합장소 : 6호선 상월곡역 대합실
- ♣ 산 행 지 : 천장산. 의릉
- ♣ 총회장소 : 경희대 후문 "그집"(010-9171-3110)
- ♣ 준 비 물 : 총회 후 식사.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휘 : 010-3797-1874

2024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 월례회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지역종친회 6월 월례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 2024년 6월 9일, 일요일, 11시
- ♣ 집합장소 : 수원역 1호선
- ♣ 방문지 : 용,건릉(사도세자, 정조대왕릉)

◆연락처: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4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